

# 여자 대학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과 가사수행능력

The Consciousness of Values in the Family and Household Abilities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李貞玗  
경원전문대학 여성교양과  
강사 尹礪熙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Jeong Woo, Lee  
Women's Culture, Kyungwon College  
Lecturer: Hyen Hee, Youn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조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ciousness of values in the family, household abilities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on ident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with these to phenomena. Data was collected for 536 students. Through a structured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distribution, percentage, mean,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The consciousness of values in the family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showed a modern tendency in general.
- 2) Most subjects showed below medium level of household abilities(48.6 point out of a possible 100), proving to be relatively lower.
- 3)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consciousness of values in

## the family with respect to household abilities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 I. 서 론

대학생은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주도적이고 중요한 잠정적인 집단이다. 그 중에서 여대생은 장차 가정의 주역으로서 가정경영의 책임을 지게 될 여성이다. 즉 여대생 집단은 미래 한국사회의 건전도 및 발전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준거집단이므로 이들이 어떠한 가치의식을 지니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와 규범의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과 새로운 상황에의 재적용 과정에서 나름의 진장을 경험하고 있는 여대생들은 재학 시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직업의 선택·준비 뿐만 아니라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치는 선택을 하는 행동의 모든 단계에서 작용하게 되므로 가정관리자가 갖고 있는 가치의식은 가정의 안정과 가정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좌우하게 된다. 이같은 사실은 가정관리자가 갖고 있는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이 관리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연화·이정우, 1987; 이병례, 1988; 이정우·오경희, 1988; 안옥희·박인전, 1993)에 의해 지지되는데, 특히 여대생 개인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은 가사수행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70년 38.5%, 80년 46.6%, 92년 47.3%) 이는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의 증대, 경제적 이유,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여성의 의식변화 등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요즘의 여대생들은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대부분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서정아, 1994).

그러나 기혼여성의 취업은 주부로서의 역할은 그대로인채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이 새로 첨가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취업후에도 직업과 가정을 조화롭

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능력과 함께 온 가족의 가사분담은 물론 본인의 가사수행능력이 요구된다. 더욱이 기본적인 의·식·주생활 수행, 가족관계와 가정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수행능력에 따라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활만족도는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대생은 장래의 진로나 직업에 대한 준비에 치우쳐 정말 중요한 가정생활에 대한 준비는 소홀히 하고 있는 듯하다. 게다가 우리나라 여대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이나 가사수행능력 등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고(박인덕, 1973; 이정수, 1984; 황인실, 1988; 서정아, 1994), 이들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는 듯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과 가사수행능력은 어떠하며 이들간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규명함으로써 앞으로의 이들의 가정생활에 대한 올바른 가치의식의 계도·가사수행능력 증진 및 미래의 가정생활의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함은 물론 그 필요성을 제고시키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여자대학생의 특성

일반적으로 여대생들은 관념적이고 고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신선하고 지각적인 안목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로서(김윤정, 1992:2), 기성세대와는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갖게 된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빈곤 속에서 성장한 부모세대가 주로 물질적 부의 추구를 인생목표로 가진 것에 비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자녀세대는 현실생활의 즐거움과 보람을 추구하며, 삶의 목표가치를 '지위지향적 목표가치'에서 '자아실현가치'로 바꾸어 가고 있다(임희섭, 1994:242-243). 같은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여자대학생은 남자대학생과는 또

다른 가치를 갖게 되는데, 여대생들은 대체로 남녀 평등과 사회활동에 대해 근대적이고 적극적인 가치의식을 갖고 있으며, 가사노동분담이나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남자대학생들에 비해 훨씬 더 근대적인 가치의식을 갖는 경향이 있다.

여대생들은 청년기의 발달과업상 정서적 독립, 경제적 독립, 직업의 선택·준비 등과 함께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에 있다. 또한 일반 미혼여성들에 비해 그 사회의 유행이나 문화를 이끌어가는 선두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며, 교육의 혜택을 받아 장차 사회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2. 대학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여러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서구사회의 근대적 사상의 영향으로 유교사상에 바탕을 둔 가족·가정 생활의 가치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오늘 날의 가정생활을 보면 서구화된 사고방식과 함께 전통성을 유지하려는 가치의식, 즉 근대성과 전통성이 혼재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옥선화, 1975; 박미금·장명숙, 1985; 이정우·오경희, 1988; 황인실, 1988; 안옥희·박인전, 1993)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의식을 조사한 연구를 보면 서구적, 합리적인 가치관과 전통적, 관습적인 요소들이 혼재한 상태에서 부모부양의식과 효의식, 家의식은 대체로 전통적인 경향을 띠거나(박진숙, 1984; 이두평, 1987) 전통적 가치관에서 점차 근대적 가치관으로 이행하는 단계에 있지만(전미향, 1988), 부부관계에 대한 가치관은 상당히 근대적이며 여대생의 경우 훨씬 더 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미향, 1988; 황인실, 1988; 강숙경·고정자, 1996). 남아선호에 있어서는 대학생들의 남아선호 경향이 기혼인들에 비해 약화되고 있으며 역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남아선호의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정아, 1994). 김일명·김명자(1989)의 연구에서는 기성 세대보다는 대학생 세대가, 남자 대학생보다는 여자 대학생이 남녀성역할, 조상승배, 가부장권에 대

해 더욱 근대적인 가치의식을 지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의식의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가사노동분담이나 가사노동의 가치에 있어서 근대적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남녀별로는 여대생의 가치의식이 더욱 근대적이었다(이홍구 외 2인, 1984; 황인실, 1988; 서정아, 1994).

한편 사회활동에 대한 가치의식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홍구 외 2인(1984)의 연구에서는 결혼 후 여성의 직업진출에 관해 여대생은 '반드시 필요 하다'고 답한 경우가 남자 대학생의 경우보다 상당히 높았다(여자 39.6%, 남자 8.3%). 다른 연구(서정아, 1994)에서도 여성취업에 대한 가치관은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경향이 높았으며,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금전은 물적자원의 하나로서 가정관리자인 주부가 갖고 있는 금전에 대한 가치관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정우(1980)의 연구에서는 재산관리시 '재산증식의 계속추구'보다는 개인 및 가정생활의 향상을 회구하여 가정의 안정과 복지를 중시하는 근대적 경향을 나타내었다(이정우, 1980; 이정우·오경희, 1988). 그러나 오히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금전관에 있어서 저축 위주의 전통적 가치의식을 지닌 것으로 조사되었다(황인실, 198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대생들의 가치의식이 부모세대나 같은 또래의 남자 대학생들의 가치의식보다 더 근대적이라는 사실은, 그 차이가 앞으로의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기 사회활동에 대한 의식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요즈음의 여대생들이 결혼 후에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적극적 지지와 협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활동과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남자 대학생들의 가치의식이 여자 대학생들의 가치의식보다 낮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3. 대학생의 가사수행능력

가사수행능력이란 제반 가사를 관리하기 위해 가

사노동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주부가 갖는 가사수행능력은 인적 자원으로서 기능하는데, 이것은 가사수행능력이 가사를 처리하는데 효율성을 증대시켜 수행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지는 한편, 대부분의 주부들이 어떤 일에 대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해당 가사노동을 더 많이 수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이은주, 1991).

여고생이나 여대생의 가사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가사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인덕(1973)의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가사능력을 식생활, 의생활, 가정관리 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식생활(25문항)에서는 '할 수 있다'의 평균문항이 7 문항 정도이며, 의생활(20문항)에서는 약 4문항 정도, 가정관리(19문항)에서는 약 5문항 정도에 그침으로써 여대생의 가사능력이 너무 이론과 지식에만 치우쳐 실제수행능력은 상당히 낮다고 하였다.

이정수(1984)는 서울시내 대학생 3,4학년의 생활행동을 시간적으로 분석하여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하루평균 가사노동시간은 60.48분으로 이는 1983년에 김규환이 '남녀 중학생은 하루에 1.3시간을 기여한다'고 보고한 것보다 더 낮다고 하였다(이정수, 1984:199).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4.5배나 더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전반적인 가사능력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영역별로도 이론과 지식쪽에 비해 실제수행능력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사노동참여도는 과거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참여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경자, 1984; 정한선, 1989; 위금영, 1992).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설정

〈연구문제 1〉 여대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이는 독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2〉 여대생의 가사수행능력은 어떠하며 이는 독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3〉 여대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과 가사수행능력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 2. 조사도구의 선정

##### 1)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측정도구

여대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박인덕, 1979; 이정우·오경희, 1988; 황인실, 1988; 이은주, 1991; 위금영, 1992 등)를 토대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가정생활에 대한 5가지 하위영역 즉,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의식, 사회활동에 대한 가치의식, 시간관리에 대한 가치의식, 금전관리에 대한 가치의식의 총 34문항으로 설정하였다. 5점 척도로 하여 평균점수 3점을 기준으로 1점에 가까울수록 전통적, 5점에 가까울수록 근대적 경향을 나타내도록 작성하였으며, 각 영역에 대한 신뢰도는 모두 .50이상이다.

##### 2) 가사수행능력 측정도구

선행연구(박인덕, 1973; 김복근, 1986; 김복남, 1986; 위금영, 1992)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족관리(가족돌보기), 가정경제 및 장보기 등의 5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총 42문항이며, 각 문항별로 경험유무를 표시한 후 경험이 있는 문항일 경우에는 응답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총점수는 1점 - 210점까지의 점수분포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능력이 높은 것이다. 각 영역에 대한 신뢰도는 모두 .69이상이다.

#### 3. 조사대상 및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내 소재의 4년제 대학 중에서 6개의 여자대학과 7개의 남녀공학 대학을 임의로 선정하여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여대생

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응답을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가사수행능력에 관한 문항은 예비조사 전에 여대생 10명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를 참고하였다. 본조사는 1995

년 9월 15일 - 12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560부 중에서 536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처리는 SAS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고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test, Pearson의 적률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집단 배경변인	구 분	N (%)	집단 배경변인	구 분	N (%)
학년	1학년	151 (28.2)	생활수준 인지	上	202 (37.9)
	2학년	122 (22.8)		中	285 (53.5)
	3학년	143 (26.7)		下	46 (8.6)
	4학년	120 (22.4)		계	533 (100.0)
공학 여부	계	536 (100.0)	부모와의 동거여부	동 거	389 (73.3)
	여자 대학	282 (52.6)		별 거	142 (26.7)
	남녀공학 대학	254 (47.4)		계	531 (100.0)
	계	536 (100.0)		기숙사	55 (38.7)
주성장지	대도시	424 (79.1)	별거시의 거주형태	하숙	22 (15.5)
	중소도시 이하	112 (20.9)		자취	45 (31.7)
	계	536 (100.0)		기타(친척, 형제 자매집)	20 (14.1)
부의 연령	40대	155 (30.4)		계	142 (100.0)
	50대 이상	355 (69.6)	부엌시설 · 설비의 편리성	상	298 (56.0)
	계	510 (100.0)		중	185 (34.8)
모의 연령	40대	346 (66.3)		하	49 (9.2)
	50대 이상	176 (33.7)		계	532 (100.0)
	계	522 (100.0)	가정생활 만족도	상	362 (67.5)
*가족형태	핵가족	492 (92.1)		중	141 (26.3)
	확대가족	42 (7.9)		하	33 (6.2)
	계	534 (100.0)		계	536 (100.0)
부의 학력	중졸 이하	23 (4.3)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20 (4.0)
	고졸	134 (25.3)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71 (14.2)
	대졸	294 (55.6)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15 (23.0)
	대학원 이상	78 (14.7)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137 (27.4)
모의 학력	계	529 (100.0)		250만원 이상	157 (31.4)
	중졸 이하	61 (11.4)		계	500 (100.0)
	고졸	250 (46.9)			
	대졸 이상	222 (41.7)			
	계	533 (100.0)			

\* 가족형태, 월평균 수입은 영향력이 없는 변인으로 밖쳐져 분석에서 제외했음.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조사결과 및 논의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 2. 여대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 1) 여대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의 일반적 경향

여대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의 일반적 경향은 〈표 2〉와 같다.

〈표 2〉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의 일반적 경향

영역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Duncan's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	469.78***	4.15	0.42	B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의식		3.55	0.46	C	
사회활동에 대한 가치의식		4.21	0.53	AB	
시간관리에 대한 가치의식		4.23	0.57	A	
금전관리에 대한 가치의식		3.25	0.39	D	
전체		3.83	0.27		

\*\*\*p < .001

조사대상자의 가정생활에 대한 전체적인 가치의식은 다소 근대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영역별로는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위영역별 평균과 유의도 검증 결과, 시간관리/사회활동/가족관계/가사노동/금전관리에 대한 가치의식 순으로 집단간 유의차가 있었다. 시간관리에 대한 가치의식이 가장 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여대생들이 합리적인 시간계획·시간관리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가사노동/금전관리에 대한 가치의식은 다른 영역에 비해 근대적인 경향이 낮았는데, 특

히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의식 중에서 '가사노동은 부부가 분담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91.7%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개인적 보람'의 측면이나 '저울, 계량컵 등을 사용'하는 가사노동의 효율성 측면에 대해서는 각각 42.5%, 22.5%만이 '그렇다'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이론적으로는 근대화되고 있지만 실제 행동면에서는 아직까지 전통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독립변인에 따른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독립변인에 따른 여대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은 〈표 3〉과 같다. 학년별로 볼 때 가족관계/사회활동/시간관리에 대한 가치의식, 전체적인 가치의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학년에 가서 근대적인 경향이 다소 감소하였다. 이것은 여대생들이 취업과 결혼문제에 더욱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인식하고, 현실에 적응하려는 성향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공학여부는 사회활동/시간관리/금전관리에 대한 가치의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여자대학의 여대생이 시간관리에 대한 가치의식에서 더 근대적인 경향을 보인 반면에, 남녀공학 대학의 여대생은 사회활동과 금전관리에 대한 가치의식에서 더 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연령은 사회활동에 대한 가치의식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의 연령이 40대인 여대생이 부의 연령이 50대 이상인 여대생보다 사회활동에 대해 더 근대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현재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40대의 아버지가 딸의 사회활동에 대해서도 더 친취적이고 근대적인 의식을 갖고 있으며, 여대생 자녀도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모의 연령은 여대생의 사회활동/시간관리에 대한 가치의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의 연령이 40대 이하인 경우에 여대생의 가치의식도 더욱 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학력과 모의 학력은 모두 여대생의 금전관리에 대한 가치의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모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에 여대

〈표 3〉 독립변인에 따른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독립변인	구 분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의식	사회활동에 대한 가치의식	시간관리에 대한 가치의식	금전관리에 대한 가치의식	전 체
		평균 D					
학년	1학년	4.21 A	3.51	4.34 A	4.26 A	3.23	3.86 A
	2학년	4.16 A	3.56	4.20 B	4.31 A	3.23	3.84 A
	3학년	4.21 A	3.57	4.25 AB	4.31 A	3.23	3.86 A
	4학년	3.99 B	3.56	4.00 C	4.03 B	3.32	3.75 B
	F	7.84***	0.54	9.75***	7.11***	1.75	4.89**
공학여부	여자 대학	4.15	3.57	4.15	4.28	3.19	3.82
	남녀공학 대학	4.15	3.52	4.26	4.18	3.32	3.85
	t	-0.15	1.10	-2.36*	1.98*	-3.67***	-1.35
부의 연령	40대	4.19	3.54	4.30	4.29	3.25	3.86
	50대 이상	4.13	3.55	4.16	4.20	3.24	3.81
	t	1.68	-0.26	2.74*	1.63	0.10	2.00
모의 연령	40대 이하	4.17	3.55	4.25	4.28	3.24	3.85
	50대 이상	4.10	3.55	4.13	4.15	3.27	3.80
	t	1.78	-0.12	2.32*	2.25*	-0.70	1.70
부의 학력	중졸 이하	4.24	3.57	4.29	4.54	3.15 B	3.88
	고졸	4.20	3.45	4.22	4.20	3.31 A	3.84
	대졸	4.12	3.58	4.18	4.23	3.22 AB	3.82
	대학원 이상	4.16	3.59	4.22	4.22	3.30 A	3.86
	F	1.56	2.52	0.38	2.47	2.79*	0.79
모의 학력	중졸 이하	4.22	3.51	4.28	4.38	3.25 AB	3.87
	고졸	4.17	3.52	4.22	4.23	3.30 A	3.84
	대졸 이상	4.12	3.59	4.18	4.19	3.20 B	3.81
	F	1.61	1.84	1.05	2.85	4.24*	1.61
생활수준 인지	上	4.12	3.61 A	4.18	4.19	3.18 B	3.81
	中	4.17	3.50 B	4.23	4.22	3.28 B	3.84
	下	4.14	3.59 AB	4.16	4.41	3.39 A	3.88
	F	0.76	3.45*	0.84	2.91	7.34***	1.41
별거시의 거주지	기숙사	4.24	3.64	4.37 A	4.41	3.32	3.94 A
	하숙	4.02	3.53	3.99 B	4.06	3.38	3.76 B
	자취	4.19	3.57	4.18 AB	4.16	3.24	3.83 AB
	기타	4.13	3.42	4.18 AB	4.25	3.29	3.81 AB
	F	1.38	1.13	3.01*	2.42	0.65	2.86*
가정생활 만족도	상	4.13	3.59 A	4.21	4.28 A	3.25	3.84
	중	4.20	3.43 B	4.24	4.13 B	3.28	3.83
	하	4.17	3.51 AB	4.07	4.16 AB	3.18	3.78
	F	1.44	6.18**	1.31	3.58*	0.99	0.64

D: Duncan's test \*p &lt; .05 \*\*p &lt; .01 \*\*\*p &lt; .001

\* 주성장지, 부모와의 동거여부, 부엌시설·설비의 편리성은 독립변인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제외했음.

생의 금전관리에 대한 가치의식이 더 근대적이었다. 생활수준 인지는 가사노동/금전관리에 대한 가치의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생활수준이 上이라고 인지한 여대생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의식이 더 근대적이었으며, 금전관리에 대한 가치의식에

서는 생활수준이 下라고 인지한 여대생이 더 근대적인 경향을 보였다. 생활수준이 上이라고 인지한 여대생이 가사노동에 대해 더 근대적인 가치의식을 나타낸 것은 선행연구(황인실, 1988; 이정우·오연옥, 1995)에서 소득이 많거나 생활수준 평가가 높은 경

우에 근대적인 가치의식을 보인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별거시의 거주지는 사회활동에 대한 가치의식, 전체적인 가치의식에서 집단간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만족도는 가사노동/시간관리에 대한 가치의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정생활만족도가 상인 여대생의 가치의식이 더 근대적이었다. 이것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황인실, 198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 3. 여대생의 가사수행능력

#### 1) 여대생의 가사수행능력의 일반적 경향

여대생의 가사수행능력의 일반적 경향은 <표 4>와 같다. 전체적인 가사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2.43 점으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100 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48.6점으로서 각각 68점(김복남, 1986, 서울지역 여고생), 68.5점(지금수, 1990, 전북지역 미혼여성)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보다 더 낮은 것이다. 영역별로 볼 때는 가족관리능력이 평균 2.71점으로 가장 높았고 의생활수행능력이 2.28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대체로 의·식·주생활 영역의 수행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가사수행능력의 일반적 경향

영역 \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Duncan's
의생활 수행능력	2.28	0.76	19.49***	D
식생활 수행능력	2.44	1.04		C
주생활 수행능력	2.34	0.90		CD
가족관리능력	2.71	0.97		A
가정경제 및 장보기 능력	2.59	0.95		B
전체	2.43	0.71		

\*\*\*p <.001

각 하위영역의 문항들을 살펴보면, 수행능력이 가

장 낮게 나타난 의생활영역의 경우 '한번도 안해 보았다'에 응답한 여대생이 재봉틀 57.6%, 간단한 스커트 만들기 56%, 치마단 수선 40.9%, 낡거나 유행이 지난 옷을 변형시켜 입기 38.2% 등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김치 담그기(67.9%), 나물 무치기(51.3%), 휴-즈 연결하기(75.7%) 등의 문항은 대다수의 여대생들이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독립변인에 따른 여대생의 가사수행능력

독립변인에 따른 여대생의 가사수행능력은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학년별로 볼 때 모든 하위영역과 전체적인 가사수행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년이 높을수록 여대생의 가사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공학여부는 의생활수행능력에서만 유의한 차가 나타났으며 남녀공학 대학 여대생의 의생활수행능력이 조금 더 높았다.

주성장자는 식생활수행능력에서만 집단별 유의차가 나타났는데,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이하일 때 수행능력이 더 높았다. 이것은 어머니와 미혼딸에 대한 연구에서 미혼딸의 주성장자가 미혼딸의 가사작업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지금수, 1990)와 일치하는 것인데, 주성장자가 중소도시 이하인 경우에 보다 더 전통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게 되므로 식생활 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의 연령과 모의 연령은 모두 의/식/주생활 수행능력과 전체적인 가사수행능력에서 집단간 유의차가 나타났는데, 부모의 연령이 50대 이상인 경우에 여대생의 가사수행능력이 높았다. 주부의 가사노동 선호성에 대한 연구(김외숙, 1981)에서는 50대 이상의 주부가 가사노동을 싫어하는 편에 속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지금까지 혼자 도맡아오던 가사일을 자녀에게 분담시키는 일이 증가하여 여대생 자녀의 가사능력이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

부의 학력과 생활수준 인지는 각각 가족관리능력에서만 유의한 차를 보여,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여대생의 가족관리능력

〈표 5〉 독립변인에 따른 가사수행능력

독립변인	구 分	의생활 수행능력	식생활 수행능력	주생활 수행능력	가족관리 능력	가정경영 및 장보기 능력	전 체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학년	1학년	2.06 C	2.04 D	2.05 C	2.49 B	2.37 B	2.15 C
	2학년	2.16 C	2.29 C	2.31 B	2.92 A	2.62 A	2.39 B
	3학년	2.37 B	2.60 B	2.41 B	2.69 AB	2.75 A	2.53 B
	4학년	2.57 A	2.91 A	2.66 A	2.80 A	2.63 A	2.72 A
	F	12.17***	19.26***	11.36***	5.14**	4.17**	16.75***
공학여부	여자 대학	2.22	2.38	2.28	2.69	2.55	2.38
	남녀공학 대학	2.35	2.51	2.40	2.73	2.63	2.49
	t	-2.03*	-1.37	-1.56	-0.53	-1.04	-1.78
주성장지	대도시	2.27	2.38	2.32	2.71	2.60	2.41
	중소도시 이하	2.33	2.69	2.40	2.71	2.52	2.52
	t	-0.77	-2.83**	-0.78	0.01	0.79	-1.38
부의 연령	40대	2.10	2.23	2.09	2.68	2.53	2.27
	50대 이상	2.37	2.53	2.44	2.71	2.62	2.51
	t	-3.77***	-2.99**	-4.04***	-0.34	-0.95	-3.53***
모의 연령	40대 이하	2.19	2.30	2.21	2.67	2.56	2.33
	50대 이상	2.47	2.74	2.60	2.78	2.65	2.64
	t	-4.10***	-4.72***	-4.88***	-1.27	-1.15	-4.89***
부의 학력	중졸 이하	2.52	2.51	2.26	2.49 B	2.69	2.47
	고졸	2.27	2.42	2.18	2.47 B	2.51	2.34
	대졸	2.31	2.51	2.42	2.79 AB	2.60	2.49
	대학원 이상	2.09	2.22	2.33	2.90 A	2.64	2.36
	F	2.55	1.64	2.33	5.18**	0.50	1.66
생활수준 인지	上	2.20	2.43	2.38	2.89 A	2.56	2.44
	中	2.34	2.48	2.32	2.64 A	2.60	2.45
	下	2.28	2.34	2.29	2.32 B	2.59	2.34
	F	2.12	0.43	0.27	8.51***	0.14	0.46
부모와의 동거여부	동 거	2.24	2.38	2.32	2.73	2.59	2.41
	별 거	2.38	2.60	2.36	2.65	2.56	2.49
	t	-1.91	-2.11*	-0.37	0.83	0.26	-1.20
부엌시설 · 설비의 편리성	상	2.34	2.57 A	2.48 A	2.87 A	2.64	2.54 A
	중	2.19	2.22 B	2.12 B	2.54 B	2.50	2.27 B
	하	2.19	2.55 A	2.30 AB	2.43 B	2.62	2.39 AB
	F	2.54	6.83**	9.16***	9.26***	1.33	8.83***
가정생활 만족도	상	2.31	2.54 A	2.47 A	2.98 A	2.68 A	2.55 A
	중	2.24	2.27 AB	2.09 B	2.22 B	2.36 B	2.23 B
	하	2.11	2.08 B	1.97 B	1.79 C	2.52 AB	2.07 B
	F	1.25	5.47**	12.41***	57.02***	6.01**	15.73***

D: Duncan's test \*p &lt; .05 \*\*p &lt; .01 \*\*\*p &lt; .001

\* 모의 학력과 별거시의 거주지는 독립변인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제외했음.

도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관한 연구(지금수, 1990)에서도 미혼딸의 인간관계능력은 가족의 월소득, 미혼딸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여대생의 식생활수행능력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는데, 부모와 별거하는 여대

생의 식생활수행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와 별거하는 경우에 자신의 식생활을 책임져야 할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편으로는 부모와 동거하는 여대생들이 그만큼 식사준비와 관련되는 일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부엌시설 · 설비의 편리성은 식생활/주생활 수행능

력과 가족관리능력, 전체적인 가사수행능력에서 집단간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경우 부엌시설·설비가 편리하다고 응답한 여대생일수록 가사수행능력이 높았다.

가정생활만족도는 의생활수행능력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집단간 유의차를 보였는데,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여대생의 가사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가족관리능력에서 가장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정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실제로 많이 참여하게 되고, 특히 가족관계가 원만하여 가족을 돌보는 능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여대생의 전체적인 가사수행능력은 학년이 높을수록, 모의 연령이 50대인 경우에, 부엌시설·설비가 편리할수록, 그리고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 4.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과 가사수행능력간의 상관관계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과 가사수행능력간의 상관관계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가정생활에 대한 전체적인 가치의식은 주생활수행능력에 대해서만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치의식의 하위영역별로 볼 때, 여대생의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은 의생활/식생활/가족관리능력, 그리고 전체적인 가사수행능력에서 부적 상관이 있었다.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의식은 전체적인 가사수행능력과 5개의 각 하위영역에 대해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서, 가사노동에 대해 근대적인 가치의식을 가질수록 가사수행능력도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이것은 위금영(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사회활동에 대한 가치의식은 식생활수행능력에서 부적 상관이 있었다. 결혼 후에도 사회활동보다는 가정일이 우선이라는 가치의식을 가질수록 일반적으로 가정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미래의 결혼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시간관리에 대한 가치의식은 주생활/가정경제 및 장보기/전체적인 가사수행능력에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것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여대생이 가사수행능력도 더 우수하다는 것을 뜻하므로, 합리적인 시간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시간의 효율적인 관리는 개인 및 가족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금전관리에 대한 가치의식은 가사수행능력과 상관

<표 6>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과 가사수행능력의 상관관계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의식	사회활동에 대한 가치의식	시간관리에 대한 가치의식	금전관리에 대한 가치의식	전체
의생활 수행능력	- 0.09*	0.12**	0.01	0.04	- 0.01	0.01
식생활 수행능력	- 0.13**	0.16***	- 0.10*	0.01	- 0.02	- 0.04
주생활 수행능력	- 0.05	0.23***	0.06	0.14***	0.05	0.12**
가족관리능력	- 0.14***	0.19***	- 0.01	0.05	- 0.01	0.01
가정경제 및 장보기 능력	- 0.07	0.13**	0.06	0.13**	- 0.04	0.04
전체	- 0.13**	0.22***	- 0.01	0.09*	- 0.00	0.03

\* p <.05 \*\* p <.01 \*\*\* p <.001

관계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과 여대생의 가사수행능력은 부분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이 전통적일수록, 가사노동과 시간관리에 대한 가치의식이 근대적일수록 가사수행능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가사수행능력은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이 반드시 전통적/근대적인 경우의 어느 한 쪽에 의해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은 무조건 전통적이거나 근대적인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각 하위영역에 따라서 전통과 근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몇가지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전체적인 가치의식은 대체로 근대적인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의 여대생들은 특히 사회활동에 대해 근대적인 가치의식을 갖고 있으며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에서도 평등한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근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결혼 후에도 직업과 가정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관리나 가사노동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근대적 가치의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여대생들은 시간관리에 대해 매우 근대적인 가치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 후에도 사회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대생들이 제한된 시간안에 직장일과 가정일을 양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의식에서는 가사노동 분담의식에 비해 개인적인 보람이나 능률적·합리적인 가사노동 수행에 대한 의식은 낮게 나타났다. 즉 여대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이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준비의식보다 이상적, 관념적인 의식에 치우쳐 있으므로, 현실적인 준비에서도 근대적인 경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치의식의 계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여러 독립변인 중에서 학년이 여대생의 가

정생활에 대한 전체적인 가치의식과 가족관계/사회활동/시간관리에 대한 가치의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3학년 까지는 매우 근대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4학년에 가서 갑자기 약화되는 것은 이상과 현실 인식의 급작스런 차이로 인해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일이다. 따라서 여대생들이 졸업후에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치관 정립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는 학교나 사회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 남녀공학의 여대생들이 사회활동에 대한 가치의식에서 더 근대적인 경향을 나타낸 것은 남학생들과의 협조와 경쟁분위기 속에서 사회생활을 미리 간접체험해 볼으로써 더 적극적인 의식을 갖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사노동/시간관리에 대한 가치의식이 더 근대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는 것이다.

셋째, 여대생의 가사수행능력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8.6점으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의/식/주생활 영역의 수행능력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여대생이 장래의 직업(사회활동)에 대한 준비에 치우쳐 가정생활에 대한 준비는 소홀히 하고 있음을 뜻하는데, 사회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여성만을 능력있는 여성으로 평가하고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사회분위기는 상대적으로 가사능력에 대한 가치는 물론 가사수행능력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마저 낮추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많은 부분이 사회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인지적, 정신적 측면에서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가족원의 분담이 이루어진다 해도 주부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가사일은 최종적으로 주부가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결혼 후의 가사수행능력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더구나 본 연구에서 사회활동에 대해 매우 근대적인 가치의식을 지닌 여대생들이 가사수행능력에서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은 의식과 실제 수행능력간의 차이를 나타내며 이는 실천력의 부족을 의미하므로 졸업후 사회 및 가정생활 적응시에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대생의 진로지도에서 가사수행능력에 대한 필요성을 함께 인식시키

는 폭넓은 시야가 요구되며, 가정에서도 실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과 가사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특히 가사노동과 시간관리에 대한 가치의식이 근대적일수록 가사수행능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것은 합리적인 가사노동과 효율적인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본 조사 대상자인 여대생들은 합리적인 가사노동수행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앞으로 가사노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교적 낮은 수준의 가사수행능력을 어느 수준까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사수행능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본적인 가사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실습 교육에 힘써야 한다. 가사수행능력은 갑자기 갖추어 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어려서부터 의식 주의 기능교육과 가족관계면의 인성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여대생 스스로의 자각과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가족 관리를 포함한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해 체계적이고 정당한 평가방법이 개발되고 주부의 재해시에 타당한 보상기준이 현실화되는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학교나 사회교육, 매스컴 등에서 의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지역의 여대생으로 한정하였는데 특히 가치의식에 있어서 지방학생들이 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경향이 있으므로(전병선, 1984) 기타 지방대학의 여대생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자대학생의 가치의식과 비교하는 연구도 바람직하며, 각 하위영역별로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치의식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독립변인에 사회심리적 변인을 더 보강하여 가치의식과 가사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을 찾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강숙경 · 고정자(1996).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과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85-95.
- 2) 김복근(1986). 여학생의 가사노동 능력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시내 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이대 석사학위논문.
- 3) 김복남(1986). 여고생의 가사능력에 관한 연구. 숙대 석사학위논문.
- 4) 김연화 · 이정우(1987). 도시주부의 가치관과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1), 231-251.
- 5) 김일명 · 김명자(1989).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족 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59-78.
- 6) 김외숙(1981).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I). 대한가정학회지 19(4), 55-64.
- 7) 박인덕(1973). 한국 여자대학생의 가사능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1(4), 399-413.
- 8) 박인덕(1979). 한국 가정생활의 가치관에 관한 일 연구. 숙대 박사학위논문.
- 9) 박진숙(1984). 대학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과 경주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2(3), 129-147.
- 10) 서정아(1994). 결혼 및 자녀에 대한 대학생들의 가치관 연구: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한남대 석사학위논문.
- 11) 윤선화(1975).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의 전통성과 근대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4).
- 12) 위금영(1992). 청소년의 가사노동 가치의식에 따른 가사노동의 분담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 13) 이두평(1987). 대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 경기 지방 15개 대학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14) 이병례(1988). 농촌주부의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관과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숙대 석사학위논문.

- 15) 이정수(1984). 대학생의 생활행동의 시간적 분석- 가사노동의 기여도. 대한가정학회지 22(1), 187-201.
- 16) 이정우(1980). 도시여성의 의식구조. 숙대: 아세아여성연구 19. 숙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47-170.
- 17) 이정우·오경희(1988). 도시주부의 가정경영에 대한 가치관이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미치는 영향. 숙대: 생활과학연구소 논문집 2, 27-57.
- 18) 이정우·이은주(1992).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관련변인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0(1), 179-198.
- 19) 이홍구·강정구·임선희(1984). 한국 대학생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학생생활지도 연구소 14, 3-54.
- 20) 임희섭(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도서 출판 나남.
- 21) 전미향(1988). 대학생의 전통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 22) 전병선(1984).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 실태 분석- 도시 지역과 지방의 비교분석-.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23) 지금수(1990). 어머니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4), 155-175.
- 24) 황인실(1988). 대학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숙대 석사학위논문.